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쇠를 먹는 불가사리

그린이 임연기 / 글쓴이 정하섭

길벗어린이

깊은 산골 외판집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
아주머니는 전쟁 때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지.
그래서 쇠를 몹시 싫어했어.
칼이나 창은 모두 쇠로 만드니까 말이야.
아주머니는 외로울 때면 이따금 인형을 만들었어.
하루는 밥풀을 뭉쳐서 작은 인형을 만들고,
이름을 불가사리라고 지었어.



아주머니는 불가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노래를 불렀어.

밥풀떼기 불가사리아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모든 쇠를 먹이라
다 먹어 치워라.

그러자 불가사리가 말을 했어.
“누가 나에게 먹이 줄까?
누가 나에게 쇠를 줄까?”
아주머니는 땀지에서 바늘을 꺼내 주었어.
불가사리는 바늘을 뱀처럼 받아먹었지.



만랑만랑하던 불가사리 몸이 단단해졌어.

이제 씹지에는 바늘이 하나도 없었어.

"누가 나에게 쇠를 줄까?"

불가사리는 아주머니 손에서 푹썩 뛰어내렸어.

방 안을 가이다니며 쇠를 먹기 시작했지.

못, 가위, 칼, 망치, 인두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먹어 치웠어.



어린이
www.gilbutkid.co.kr

하루가 지나자 불가사리는 귀만해졌어.

이제 방 안에는 섯조각 하나 없었어.

“누가 나에게 쇠를 줄까?”

불가사리는 문 밖으로 나갔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쇠를 먹기 시작했지.

문고리, 자물쇠, 쇠꼬챙이, 쟁이, 삽, 낫, 톱…….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먹어 치웠어.



일주일이 지나자 불가사리는 개만해졌어.
이제 집 안에는 솥조각 하나 없었어.
“누가 나에게 쇠를 줄까?”
불가사리는 집 밖으로 나갔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쇠를 먹기 시작했지.
도끼, 가마솥, 쇠말뚝, 쇠스랑, 쇠종……,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먹어 치웠어.



한 달이 지나자 불가사리는 소말해졌어.
이제 동네에는 섯조각 하나 없었어.
“누가 나에게 쇠를 줄까?”
불가사리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쇠를 먹기 시작했어.
쇠문, 쇠파살, 쇠뿔뿔, 쇠가둥……,
쇠뿔이란 쇠뿔이는 모조리 먹어 치웠지.
불가사리는 집채만 해졌어.





불가사리는 쇠를 찾아서 점점 더 멀리까지 갔어.
하루 있다 돌아오고, 이틀 있다 돌아오고,
사흘 있다 돌아오고, 열흘 있다 돌아오고……,
불가사리는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어.

어느 날, 아주머니가 불가사리에게 말했어.
“이제 너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러자 불가사리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어.
“꼭 다시 돌아올게요!”
불가사리는 아주머니와 헤어져 길을 떠났어.



그 무렵,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야.
“누가 오랑캐를 무찔러 나라를 구할까!”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신하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

불가사리 불가사리
쇠를 먹는 불가사리,
칼도 먹고 창도 먹고
모든 쇠를 먹지요.



마침내 불가사리가 전쟁터로 나갔어.
오랑캐들은 불가사리를 겹겹이 에워싸고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찔렀지.
하지만 불가사리는 끄덕도 하지 않았어.
쿵쾅쿵쾅 돌아다니며 쇠를 먹기 시작했어.
칼도, 창도, 대포도 닥치는 대로 다 먹어 버렸지.
오랑캐들은 겁에 질려 줄행랑을 쳤어.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 안에 잔치가 벌어졌어.

“불가사리 만세! 불가사리 만세!”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며 불가사리를 우러러보았지.

하지만 불가사리는 다시 쇠를 찾아 길을 떠났어.



이제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불가사리 이야기를 했어.
불가사리 이름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지.

길벗이

www.gilbet.com



그러자 왕은 불안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
불가사리가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걱정이 된 거야.
왕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쇠를 먹는 불가사리
쇠로 잡지 못한다네,
쇠덩어리 불가사리
불로 녹여 잡는다네

왕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궁궐로 불러들였지.
그 사람은 외눈박이 점쟁이였어.
점쟁이는 불가사리를 잡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





왕은 곧바로 일을 꾸미어,
먼저 들판에 마른 짚과 숯을 촘촘히 깔고
높은 가등을 세운 다음
아주머니를 잡아들여 가등 위에 묶어 놓았어.
그리고 길목마다 군사들을 숨겨 두고,
불가사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이윽고 불가사리가 나타났어.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지.

가거라 불가사리
산 넘고 물을 건너
돌아보지 말고서
앞만 보고 가거라
멀리멀리 가거라
죽지 말고 가거라


길벗어린이

gilbutkid






그 때 군사들이 들판에 불을 질렀어.
그러자 불가사리는 뜨거운 불길을 헤치며
아주머니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어.
몸이 불에 녹는 줄도 모르고, 있는 힘껏 달려왔어.
질질질질, 줄줄줄줄, 짹짹짹
젖물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흘러내렸지만,
불가사리는 멈추지 않았어.



불가사리는 아주머니를 구해 불길 밖으로 나갔어.
자꾸자꾸 녹아 내리는 몸으로 비뽀비뽀 걸어갔지.
그 뒤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데.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불가사리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깊은 산골 외판집에 아주머니가 혼자 살았어.
아주머니는 외로워서 이따금 인형을 만들었지.
하루는 밥풀을 뭉쳐 인형을 만들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

밥풀떼기 불가사리아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모든 쇠를 먹어라
다 먹어 치워라.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아주머니가 혼자 살았어.
아주머니는 외로워서 이따금 인형을 만들었지.
하루는 밤꽃을 봉치 인형을 만들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



밤꽃새기 불가사리아 너는 너는 자라서
쇠를 먹고 자라서 죽지 말고 자라서
모든 쇠를 먹어라 다 먹어 치워라.



ISBN 978-89-86621-44-0
값 8,000원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